

창세기 열번째 메일

비운의 여인 ‘하갈’이 등장한다!(창 16,21) 나는 성경을 읽을때마다 ‘하갈’이 마음에 걸리곤 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을 생각을한 피가 많은 여자다. 애굽에 들어 갈때도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려고 했을때 단호히 거절해야했지만 아브라함의 ‘속임수’를 받아들였다. 그녀도 한마디로 ‘공범’이었다. ‘하갈’이 아들을 낳고 잠시 사라를 멸시하자 아브라함을 꼬득여 그녀를 학대하고 결국 만삭인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다(창 16: 6). 하갈’은 철저히 사라에게 이용당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네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 했지만 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런 사라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지적하셨지만 사라는 웃지않았다고 잡아떼면서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창 18:15).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정말 아들 이삭을 낳고 잔치를 벌였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쫓아낸 여자가 ‘사라’다(21:8-10). 그라고 그녀는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를 놓고 늘 근심했지만(창21:11). 사라에게는 그런 이해와 사랑 따위는 없다. 나는 ‘사라’가 좋은 마음씨를 가진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 할수 없는 것은 그런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

은 훈계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권고하셨다 (21:12).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 학자들이 찾은 답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정말 그럴까? 택함 받은 사람은 그 택함 받은 것으로인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죄를 범해도 모두 사랑 받고 용서받고 그러는 건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찌 부인 할수 있는가? 보라! 이세상 천지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수 없는 자리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대로 쓰임을 받는다.

감독이 배우를 '선한역'에 선택을 하든지 '악한역'에 선택을 하든지 배우는 단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뿐이다. 그 배우가 악한역을 잘했다고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기때문일까? 그럼 배우가 선한역을 잘 했다고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기때문인가? 악해서 악하고 선해서 선한것일까? 보라! ‘하갈’ 보다 ‘사라’가 더 나쁘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해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대해서 하나의 토도 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것이라고 ‘하갈’과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한 선택의 뜻을 어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하갈’처럼 착하게 살고도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악하고 선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별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은

모두가 거짓되다(롬 3:4). '하갈'과 같은 사람들은 한번 있는 인생에서 비운의 삶을 살아야한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무대에서 '의로운역'을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갈' 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볼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말 선택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마치 특권이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사라'에게서 당신과 내가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하갈' 이 될수 없지만 '사라'처럼 되어서도 안된다. 당신의 삶이 선택으로인해 아름답기를 바란다. 아멘!!